

이식과 번역, 모방으로 점철된 한국 추리문학사

이해조의 《쌍옥적》부터 장용민 외의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까지

조성면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강사

한국은 추리소설에 관한 한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90년이 넘는 추리소설 역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추리소설사는 이식과 번역과 수용의 역사며, 또한 다른 대중문학에 비해 토착화와 상업화 그리고 문학사적 성취 등의 모든 측면에서 실패한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추리소설은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기에 탄생한 대중문학의 한 갈래다. 물론 세계 최초의 추리소설로 알려져 있는 에드가 앨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사건〉(1841) 이전부터 수수께끼 풀이 모티브로 짜여진 퍼즐형 설화문학과 공안소설(公案小說)·재판소설(裁判小說)·송사소설(訟事小說) 등의 전통적인 이야기 양식들이 있었지만, 추리소설의 장르적 원형이 완성된 시기는 포에 이르러서다.

추리소설을 근대문학으로 봐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추리소설은 불가해한 범죄나 미궁에 빠진 사건이 이성적(理性的) 영웅(탐정, 경찰 등)에 의해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그린 수학적(數學的) 서사시며,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인간의 삶과 운명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근대 이성중심주의와 (속류)계몽주의를 내면화·공식화하고 있는 지식형의 오락소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전적 탐정소설들 그리고 로널드 녹스(Ronald Knox)의 〈탐정소설 10계〉나 반 다인(Van Dine)의 〈탐정소설 작법 20 규칙〉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 추리소설은 세계가 합리적·기계적 인과질서에 따라 움직이며, 이성의 힘으로 시적 정의(poetic justice)가 이뤄질 수 있다는 순진하면서도 환상에 가까운 믿음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 로망스의 면모도 함께 있다. 그렇다면 추리소설이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경로와 계통을 거쳐 형성됐으며, 그 전개 양상은 어떠했는가.

이해조의 《쌍옥적》이 한국 최초의 추리소설

한국은 추리소설에 관한 한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는 어느 추리소설가의 지적대로, 우리의 경우에는 서구 소설



의 번역과 수용 그리고 모방이 주류를 이뤄왔으며 아직까지 세계시장에 내놓을 만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추리소설사는 이식과 번역과 수용의 역사며, 또한 다른 대중문학에 비해 토착화와 상업화 그리고 문학사적 성취 등 모든 측면에서 실패한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언짢아할 필요는 없다. 추리소설의 발전 정도가 그 나라의 문학과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국내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인상적인 작품이 없다고는 해도 90년이 넘는 토종 추리소설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연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사에서 근대적 추리소설에 가까운 작품을 가장 선구적으로 발표한 이는 근대 계몽기의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 동농(東農) 이해조다. 그가 '정탐소설'(偵探小說)이란 선명한 표제를 달고 《제국신문》에 1908년 12월 4일부터 1909년 2월 12일까지 총49회에 걸쳐 연재하고, 1911년에 보급서관에서 단행본으로 펴낸 《쌍옥적》이야말로 한국 추리소설사의 맨 앞자리에 놓일 수 있는 작품이다.

구한말 탁지부로 운송되던 김주사의 돈가방이 경인선에서 사라지고, 괴이한 절도 사건이 꼬리를 물자 근대적 탐정의 맹아라 할 수 있는 두 명의 기찰포교가 고소사란 민간 여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간난신고 끝에 이인조 강도인 쌍옥적을 체포한다는 것이 《쌍옥적》의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쌍옥적》은 친일적 성향의 계몽주의와

서사구조의 허약성으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추리소설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재래의 송사소설 전통을 이은 공안소설에 가깝다는 분명한 한계도 있다.

《쌍옥적》 이후, 국적불명의 변안 추리소설 《지환당》(1908)이 출판되고 1918년 《태서문예신보》에 코난 도일의 작품이 처음으로 번역·소개되면서 추리소설은 마침내 한국문학사의 분명한 현상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해조의 뒤를 이어 방정환, 최독건, 최유범, 채만식과 같은 몇몇 국내 작가들에 의해 추리소설 창작이 시도되는데, 이때의 추리소설 역시 방정환처럼 어린이들을 근대적 주제로 키워내려는 조급한 계몽적 열정의 소산이거나 채만식(서동산이란 필명으로 1934년 5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조선일보》에 《엄마》를 연재)과 같이 어설픈 딜레타티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대중의 열광 불러일으킨 만한 작품 못내봐

한국근대문학사에서 추리소설이 장르상의 완성을 이루게 된 것은 김내성이 <타원형의 거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김내성의 등장으로 우리 문학사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추리소설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일본의 추리소설 대가인 에도가와 람포(江戸川亂歩)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만큼 빼어난 트릭과 극적 반전이 돋보이는 그의 이 데뷔작이 일본어로 씌어졌다는 사실이다. <타원형의 거울>은 1935년 3월 일본의 탐정소설 전문잡지인 《프로필》의 현상응모에 당선된 작품이다.

어쨌든 김내성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추리소설의 시대가 개막되는데, 그의 대표작 《마인》을 비롯해 코난 도일, 모리스 르블랑, 반다인, 포, 가보리오,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이 잇따라 번역·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때 추리소설 번역에 가담했던 문인들은 이하운, 김광섭, 김유정, 김환태, 방인근 등이었는데, 김유정은 추리소설의 기법을 원용해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고 후일 방인근은 자신이 직접 추리소설 창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마인》을 제외하고 추리소설로 이렇다 할 대중적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자 김내성은 《도깨비 감투》《백가면》《똥똥이의 모험》 등의 아동문학과 《청춘극장》《인생화보》와 같은 애정소설로 창작의 방향을 전환해버렸고, 서양의 빼어난 탐정소설들이 속속 번역돼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자 국내 작가들에 의한 토종 추리소설은 한동안 적막했다.

이런 상황에서 1950~1960년대에는 백일완, 허문녕, 방인근, 문운성 등의 작가들에 의해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고, 1970~1980년대에는 《최후의 증인(전2권)》(고려원미디어)을 발표하면서 일시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끌기도 했던 김성종을 위시해서 이상우와 같은 작가들이 최근까지 비교적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소수 마니아층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제외하고 대중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한 걸출한 작품을 생산해내지는 못했다. 현재까

지 이와 같은 사정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1988년에 창간된 《추리문학》이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곧바로 폐간됐으며 90년대에 와서는 구효서의 《비밀의 문(전2권)》(해냄),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세계사) 그리고 장용민·김성범의 《건축무한 육면각체의 비밀(전2권)》(미컴)과 같은 몇몇 작가의 작품들이 대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영화화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따름이다.

변화하는 시대와 문학환경에 적응해야

현대 대중문학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통적인 장르들이 해체되고 그 경계가 급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흐름에서 추리소설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안락의자에 앉아서 머리로 사건을 해결하던 정통적인 고전과 추리소설들이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진짜 '고전'이 돼버린 것이다. 예컨대 1·2차 세계대전과 냉전·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안락의자에 앉아서 파이프를 물고 사건을 해결하는 진부한 이야기 방식들이 더 이상 독자들에게 먹혀들지 않게 된 것이다. 기실 요즘에 와서는 더쉴 헤미트에 의해 개발된 하드 보일드형 탐정소설이나 국제적 규모의 스케일을 지닌 이언 플레밍의 <007시리즈> 그리고 전통적인 추리소설의 문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해석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극단으로까지 밀고가는 보르헤스식의 마술적 리얼리즘조차도 낫설지 않을 정도로 크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솔직히 현재 우리 추리소설의 생존 방법과 선택의 폭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변화하는 시대환경에도 적응해야 하고, 문학을 본격/대중으로 나누는 이항대립적이고 엄숙한 문학담론들과 재래의 서사문법을 단숨에 넘어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작품을 생산해내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가 갑자기 소멸해버리지는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추리소설이야말로 이제까지 인류가 창안해낸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 양식들 가운데 하나기 때문이다. ■

조성민씨는 한국정신문화원(석사)과 인하대(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인하대와 경원대에서 강의중이다. 지은 책으로 《한국 근대 탐정소설 연구》《한국 근대 대중소설 비평론》 등이 있다.